

2017.10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7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주)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7.10.31	대전MBC 대회의실	7/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정철상, 이승선, 신종성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오승용 경영기술국장, 장래균 편성제작
국장, 신영환 편집부장, 이광원 광고부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8	4	-	1	13	-	13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2	1	-	13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8건	8건	9, 10월
보도	‘대전여성취업박람회’ 등 사회공헌활동을 방송에 꾸준히 소개를	‘대전여성취업박람회’ 전국이 보인다(9/17)에서 집중적 소개	9월
보도	현안 보도 시 찬성 반대 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전 월평동 장외발매소 폐쇄해야"(10/13) "세종시 대전·청주와 택시 통합 반대"(10/23) 양측 입장 보도	10월
기타	‘사이언스 페스티벌’ 대전MBC의 역할과 기능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사이언스 페스티벌’ 대전MBC 주관행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10월
보도	뉴스 밸류에 맞는 뉴스보도 배치를	뉴스 밸류 있는 아이템을 제일 앞으로 뉴스선도 약한 것은 후반부로 배치함	10월
보도	대전MBC 행사성 보도(경제부동산 최고위과정) 보도 자제를	대전MBC 행사성 보도(경제부동산 최고위과정) 10월 뉴스에서 취급 안함	10월
교양	로드 다크 “테마기행 길”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 문화, 음식 등 소개를	“테마기행 길”에서 <하늘과 바람과 별 그리고 영천>(9/25) 등에서 지역 고유의 문화를 영상으로 전달	9월
교양	TV특강 사전에 출연진 마이크 점검하여 오디오 불량상태 점검을	TV 특강 “약손 서현규 교수 통증 완화법(10/23)“, ”스마트&휴머니티 1인브랜드“(10/30) 등 프로그램에서 오디오 양호하게 방송	10월
교양	건강관련 프로그램 코너인 “TV주치의” 시청자 질문을 삽입	건강플러스의 “TV주치의” 코너에 일반 시민들의 해당 관련 질환 의문점 사전에 제작해 구성하고 있음	9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7. 5. 01. ~ 2018. 4.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비고(임기)
위원장	신성철	KAIST총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과학기술단체	17.05.01- 18.04.30
	송길현	목요언론인클럽 고문	목요언론인클럽	언론관련단체	17.05.01- 18.04.30
위원	김종문	한화생명 충청지역본부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17.05.01- 18.04.30
위원	함진호	ETRI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TRI	과학기술단체	17.05.01- 18.04.30
위원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재)청소년과 사람사랑충남지회	청소년단체	17.05.01- 18.04.30
위원	이상진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충남연구원	문화단체	17.05.01- 18.04.30
위원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단체	17.05.01- 18.04.30
위원	강은혜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17.05.01- 18.04.30
위원	신종성	골프존 네트워크 대표이사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17.05.01- 18.04.30
위원	김은주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7.05.01- 18.04.30

*신성철, 송길현, 김종문, 함진호, 김은주 위원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10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뉴스데스크(10월 12일)대전 고법 마약 환각 상태에서 존속살인 무죄 보도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4년 형에서 2년의 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죄로 2년의 형이 선고된 것인지 정확히 보도해주지 않아 아쉬웠다. 궁금해서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찾아보니, 같은 날 연합뉴스는 마약 투약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대전지방법원의 사건인 만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김은주).</p>	<p>앞으로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뉴스 내용을 더욱 보강하겠다.</p>			
보도	<p>음주운전 신고자 무고한 중학교 교감 징역형 보도에서, 자료화면으로 나온 법정은 민사법정이다. 민사법정은 ‘피고석’이라고 기재 되어 있지만, 형사법정은 ‘피고인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형사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형사법정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10/24 뉴스데스크)</p> <p>음주 상태로 10m 주차 운전 벌금 700만원 보도에서, 역시 자료화면으로 민사법정을 보여줬는데, 형사법정 자료영상이 없는가 보다 생각된다. 형사법정 자료화면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10/17 뉴스데스크). (김은주).</p>	<p>앞으로 재판 관련 기사 처리 시 민사와 형사법정을 각별히 구분해 영상을 편집하겠다.</p>	○		
보도	<p>‘부여 묘지 조성 유족에 금품 요구 추가접수 신고 접수’보도에 대하여, 이전에 한차례 이상 보도된 내용에 대한 후속보도인 것 같은데, 이전 보도를 접하지 못한 시청자들은 이 보도 내용만 보고는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본 위원도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전 보도를 못 본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상세한 보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대전에서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칼로 찌른 모 고등학생을 ‘불잡아’ 조사하고 있다, 태안경찰서가 ‘개조개’ 불법 채취한 장모씨 등 2명을 ‘불잡아’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서, ‘불잡아’라는 표현이 이상한 것 같다. 체포나 구속 여부를 알 수 없거나, 체포나 구속 전단계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으나 다른 적절한 표현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김은주).</p>	<p>‘불잡아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피의자의 신병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조사하는 시점에서 나온 기사였다.</p> <p>시청자의 이해를 위한 상세한 보도에 노력하겠다.</p>	○		

교양	<p>전국이 보인다(10/22)에서 취원각을 소개하였다. 천안 성환읍에 있는 취원각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곳이지만, 영상으로나마 구경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리나’라는 리포터가 오버하지 않는 스타일로 호감이 가서 보기 편했다.</p> <p>청주에 있는 식당 소개는 식당 자체가 그다지 특색 있는 것 같지 않았고, 단지 너무 소비지향적인 것을 소개하는 것 같아 보기 좋지 않았다(김은주).</p>	<p>‘전국이 보인다’는 지역 16개사의 다양한 자연, 문화, 인물에 대한 정보 프로그램이다. <취원각>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전통건축을 다뤄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새로운 소재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p> <p>청주의 식당은 충북MBC가 제작한 것으로 프로그램 경쟁력을 위해 조율하겠다.</p>			
교양	<p>전국이 보인다(10/22)에서 천안의 취원각 소개 후 청주의 맛집을 소개하였다. 중화요리와 이탈리아 요리를 비교하여 식당을 소개하였다. 한 코너가 끝나고 진행자가 다시 전통음식 만드는 주부를 소개하였는데 역시 청주편을 소개하였다.</p> <p>10월 29일 방송에서도 울산, 대구, 강릉, 전주에서 다시 강릉편이 방송되었다.’ 전국이 보인다’는 타이틀에 걸맞게 전국 각지의 이야기들이 골고루 소개되어야 하는데 특정 지역이 반복되어 방송되다 보니 구성상 깔끔 하지 않는 듯싶다(강은혜).</p>	<p>의견에 공감한다. 노동조합의 파업이 진행 중이라 각 지역사의 아이템 공급이 원활 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이다.</p> <p>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청자가 공감하고 좋아할 수 있는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p>	○		
보도	<p>기사 중에서 “올 겨울 가장 추운 날씨이다”라는 표현이 있다 올 겨울은 2017년 1월도 11월도 올 겨울에 해당되기 때문에 올 겨울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번 겨울”이 맞는 표현이다.</p> <p>“가을 억새꽃이 장관이다”라는 표현에 있어서도 가을억새꽃이 아닌 “가을억새”가 맞는 표현이다(이상진).</p>	<p>기자의 기사 작성 시, 방송으로 시청자와 만날 때 사전에 한 번 더 점검하여 올바른 표현이 되도록 더욱 유의하겠다.</p>	○		
보도	<p>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수량, 환경부가 수질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물 관리체계를 환경부가 수량·수질을 통합해 관리하는 일원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과 국토부 산하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통합물관리” 관련된 이슈를 놓치지 말았으면 한다. 얼마 전에 용담댐 물 배분 문제로 충남과 전북의 대립이 있었던 것을 보더라도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이상진).</p>	<p>‘통합물관리’ 관련 의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도에 임하겠다.</p>	○		
보도	<p>파업 관계로 뉴스도 기획취재물 없이 단신 뉴스로 구성되어 보도 되고 있다.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역 이슈를 잘</p>	<p>파업으로 보도 제작의 경우 어려움이 많지만 지역 이슈를 놓치지 않고 보도하도록 하겠다.</p>	○		

	찾아 이슈를 적극적으로 보도 해주기 바란다(이상진).				
기타	파업 장기화로 시청자들이 대전MBC 뉴스에 관심을 갖기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금은 다매체다채널 시대로 지상파에서 접하지 못한 소식은 종편에서도 쉽게 얻는다. 공영방송의 위상이 전과 같지 않고 신뢰도와 영향력이 많이 감소되었다.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되어 시청자들로부터 사랑받는 대전MBC가 되길 기원해본다(송길현).	대전MBC 구성원들 모두 방송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파업 장기화는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다. 방송 정상화의 길로 합심하여 노력해 시청자들의 눈과 귀가 되는 대전MBC가 되도록 하겠다.			
보도	요즈음 TV 보기가 겁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살인사건이 보도가 된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밝은 소식도 필요하다. 따뜻한 뉴스를 발굴해 보도를 해주면 좋겠다(함진호).	사건, 사고가 넘쳐나는 요즈음 사회의 메마른 이야기를 전달하여 안타깝다. 훈훈한 감동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뉴스로 전달하도록 하겠다.	○		
교양	“전국이 보인다” 에서 백제문화제 개막식과 함께 폐막식 그리고 화제의 현장을 다루어 전했다. 직접 참여했던 나로서는 프로그램에서 백제문화제 행사 이모저모를 놓치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한 점이 좋았다고 생각한다(김중문).	칭찬에 감사한다. 백제문화제는 67년 이어온 지역의 대표적인 그리고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축제이다. 지역 방송사로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방송사 본연의 의무인 ‘로컬성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교양	대전MBC의 “힘내라 우리농업” 에서 충남 농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활약과 생산물을 맛깔스럽게 소개하고 있다. 진행자가 재미있게 전달하였다(신성철).	칭찬에 감사한다. ‘힘내라 우리 농업’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 자부한다. 점점 피폐해지는 농촌의 현실을 타파하고 ‘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획하였다. 부족한 프로그램이지만 ‘농촌에 희망이 있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게끔 정진하겠다.	○		
보도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2016 노벨과학상 작은 세계에서 미래를 보다” 편이 3부작으로 방송되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자들을 영상으로 만나보니 의미가 있었다.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길지 않은 15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었던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이 각각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응용될 것인가?” 하는 메시지가 다소 약했다. 앞으로 제작 시 이 부분 유의했으면 한다(신성철).	프로그램에서 각 수상자들의 연구 업적이 앞으로 인류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이야기하고자 노력했으나 그 부분이 시청자들에게 확연히 느껴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좀 더 노력하겠다.		○	

